

금융개혁 핵심과제 핀테크 : 1년의 변화

- Big 7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-

2015. 12.

금 융 위 원 회



목 차

| | |
|---|----|
| I. 추진 배경 | 1 |
| II. 추진 경과 | 2 |
| III. 핀테크 육성 : 지난 1년간의 변화 | 3 |
| 1. 혁신적인 서비스로 금융이 편리하고 쉬워졌습니다 | 4 |
| (1) 내 손안의 은행,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합니다 | 4 |
| (2) 클라우드 펀딩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현됩니다 | 5 |
| (3) 한 번에 비교하여 골라담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| 5 |
| (4)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| 6 |
| (5) 원클릭(One-Click) ! 간편결제 | 6 |
| (6) 내 계좌를 내 맘대로 옮기는 계좌이동서비스 | 7 |
| (7)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 지속 | 7 |
| 2.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| 8 |
| (1) 핀테크 자원센터를 통해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| 8 |
| (2) 정책자금과 금융회사 지원으로 자금조달이 쉬워졌습니다 | 8 |
| (3)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든든한 멘토가 되었습니다 | 8 |
| IV. 앞으로의 과제 | 11 |
| 1. 핀테크를 통한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| 11 |
| 1. 핀테크를 뿌리 내리기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| 11 |
| 2. 핀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| 12 |
| 3.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겠습니다 | 13 |

I. 추진 배경

현황

- 모바일 결제시장의 성장, 핀테크 산업 투자규모 확대* 등
全 세계적으로 IT·금융 융합(핀테크, Fin-tech)이 빠르게 진행 중
 - *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(억\$) : ('11) 1011 → ('13) 2354 → ('15e) 4311 → ('17e) 7214
핀테크산업 투자규모(억\$) : ('08) 9.3 → ('11) 24.3 → ('13) 40.5 → ('14) 122.1
- 기존의 인터넷뱅킹 등 IT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넘어
페이팔, 알리페이 등 금융을 바꾸는 혁신적 서비스 지속 출현
- 우리나라는 우수한 금융 IT인프라를 보유하여 인터넷*·모바일
뱅킹** 등 IT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에는 강점을 가졌으나,
 - * 은행이용자 대비 이용자 비중 : 약 94%('13) / ** 경험자 비율(% '13) : 한국 47, 미국 32
- 금융업의 높은 진입장벽, 경직적 규제환경, 보안에 대한 우려
등으로 기존 금융을 대체할 혁신적 서비스 도입은 다소 정체
→ 국내 핀테크 산업은 美·英 등 선진국 대비 3~5년 뒤쳐진 수준*
 - * 민·관 전문가 30명 설문조사 결과(동아일보, '15.1월)

추진 필요성

- '선도자(first mover)의 이득'이 크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
핀테크 환경을 고려,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집중 육성 필요
 - ①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발전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
('메기 효과') → 금융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
 - ② IT·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핀테크 육성을 통해
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도출
- ⇒ 세계 수준의 ICT 기반과 신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국내 소비자
성향 등을 감안할 때,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음

II. 추진 경과

◇ 인터넷 전문은행 등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비행으로
핀테크 육성 등 금융개혁과제의 성과 가시화

- ① (천송이 코트) 천송이 코트 사례를 통해 국내 쇼핑물 이용이
어렵다는 점이 이슈화 → 획기적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추진('14.3월)
 - * '벌에서 온 그대'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인들이 주인공이
입고 나온 '천송이 코트'를 구입하려 했으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등으로 구매 포기
 - ※ 관련조치 : ① 전자상거래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('14.5월)
② 부처 합동 「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」 발표('14.7월)
- ② (IT·금융 융합방안 발표)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,
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의 청사진 발표 ('15.1.27)
 - * ① 규제 폐려다임 전환 : 사전규제 최소화, 기술중립성 원칙 명시 등
②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: 인터넷 전문은행, 클라우드 펀딩 도입 등
③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: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, 자금 지원 확대 등
- ③ (핵심개혁과제 선정) '핀테크 육성'을 금년내 가시적 성과를
거둬야 하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 ('15.3월)
 - * 전자금융업권 산업규모 증가, 핀테크를 활용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
강화('메기 효과') 및 금융소비자의 편의 증대 등
- ④ (단계별 추진전략 마련) 핀테크 육성 과제의 체계적 추진을
위한 핀테크 육성 단계별 추진전략 및 향후과제 발표 ('15.5월)



- ⑤ (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출시) 인터넷 전문은행, 클라우드 펀딩,
'보험다모아'(온라인 보험 슈퍼마켓) 등 혁신적 서비스 지속 출시 중

III. 핀테크 육성 : 지난 1년간의 변화

- ◇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 정책 약 1년 만에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
* 일반국민(1,000명) 및 이해관계자(106명) 대상 설문(한국리서치, '15.11월)

- ▶ 조사대상 국민의 약 66.3%가 '핀테크'를 인지하고 있음
- ▶ 핀테크 서비스 이용자 중 약 74.2%가 서비스에 만족*
* 편리함, 시간 절약, 언제·어디서나 이용 가능, 비용절감 등

- ◇ 핀테크 기업, 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긍정적(65.1%)
* 현장과의 소통 강화, 규제완화, 다양한 서비스 출시 등

- ▶ 또한, 응답자의 약 72.6%는 핀테크가 향후 우리나라의 주요한 미래 성장산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

- ◇ 전자금융업자 수, 전자금융거래 건수 및 매출액,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 등 핀테크 산업의 외형도 크게 성장



- ※ 해외 우수 언론*도 정부의 적극적 핀테크 육성정책으로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

* "속도가 빠른 나라, 한국의 핀테크 산업" (9.14, 獨 쥐트도이체제자이퉁(SZ))

1 혁신적인 서비스로 금융이 편리하고 쉬워졌습니다.

(1) 내 손안의 은행,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합니다.

-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「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」 발표(6월) 후, 한국카카오 은행, 케이뱅크 은행 등 2곳에 예비인가(11.30일)
- 지점방문 없이 휴대폰·인터넷을 통해 모든 은행업무를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이 23년 만에 탄생
- 기존 금융회사행에서 원활하게 대출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, 중신용자 대상 中금리대출* 공급(기존 금융권과 건전한 경쟁 유도)
* 기존 재무정보와 함께 SNS·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'차별화된 신용평가 모형' 구축
- 고객과 가맹점을 직접 연결(VAN·PG·카드 less)하여 지급결제, 해외송금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대폭 절감
- 편의점 뱅킹, 휴대폰 기반 간편 송금·결제 및 Robo-advisor* 자산관리·자문 서비스 등 금융거래 프로세스 혁신

*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자동화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자문서비스

⇒ 은행별 직접고용(200명 내외, 양사 추정)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 고용 확대(플랫폼·IT보안 등) 등 질 좋은 일자리(decent-job) 창출

⇒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·운영 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

☞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

-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(6월), 은행법 개정안(7월)을 마련한 후
-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.(11월)

(2) 클라우드 펀딩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현실이 됩니다.

□ '16.1.25부터 증권형 클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될 예정

-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초기 창업·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통로 확대

- 투자한도 및 전매 제한 등 엄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

⇒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창업 기회가 확대되고, 경제 활성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기여

⇒ 향후 3년('16~'18년)간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약 2,700억원 수준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(자본연 추정)

* 최대 2,400여명의 고용, 약 7,100억원의 매출 효과 발생

☞ 클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

-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클라우드 펀딩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(7월)
-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(예탁결제원)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. (11월)

(3) 한 번에 비교하여 골라담는 온라인보험슈퍼마켓 '보험다모아'

□ 실손·자동차·여행자·연금 등 다양한 분야 217개의 보험상품이 등재된 '보험다모아'(온라인 보험슈퍼마켓) 출범*(11.30)

*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범 2일 만에 약 95,000명이 사이트 방문

- 다양한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환급금을 공신력 있는 통합 사이트를 통해 비교·공시하고 가입경로까지 안내

⇒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보험정보를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으며, 사업비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*도 가능

* 약 10~15%의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

☞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

-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구축 방안을 확정(6월)한 후,
- 소비자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고 사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.(8~10월)

(4)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.

□ 은행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 신규계좌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* 가능

* ①신분증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기존 계좌 활용, ⑤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(생체인증 등) 중 2가지 의무 적용

⇒ 은행 업무 시간에 구매 받지 않은 온라인 원스톱 금융거래를 통해 이용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향상

* (예) 00은행 스마트점포: 비대면 3중장치(신분증 + 영상통화 또는 손바닥정맥 생체인증 + 핸드폰인증)로 거래하는 복합ATM 업무개시(12.2일)

☞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도록 금융위원회는

- 「금융거래시 실명확인 합리화방안」을 마련했습니다.(5월)
-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로 '생체정보 활용'을 인정했습니다.(9월)
- 「금융실명법」 유권해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습니다.(12월)

(5) 원클릭(One-click)! 간편결제

□ 전자금융업자, 통신사, 포털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업종 특성에 따른 총 26종의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('15.11월 현재)

- 공인인증서, 보안카드 등 기존 인터넷뱅킹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비밀번호 입력이나 결제단말기 접촉만으로 결제 가능

⇒ 스마트폰을 사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 쇼핑 비중이 지속 증가*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**

* ('15.7월) 45.1% → ('15.8월) 46.2% → ('15.9월) 47.2% (출처 : 통계청)

** 간편결제 인지 97.2%, 경험 72%, 재이용 의향 77.5%('15.6월, DMC미디어)

☞ 간편결제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

- PG사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였습니다. ('14.9월)
- 보안프로그램 설치,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습니다. ('15.2.3월)

(6) 내 계좌를 내 맘대로 옮기는 계좌이동서비스

- 온라인 사이트(Payinfo)를 통해 주거래계좌에 연동된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간편하게 이동 ('15.10.30 시행)
 - 기존에는 카드·보험·통신사별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옮겨야 했으나, 시행 후에는 사이트 접속으로 한번에 이동 가능
- ⇒ **고객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·서비스 개발 등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편의 증대**
 - * 접속 : 48.5만명, 변경 : 13.5만건, 해지 : 14.5만건(11.30일 기준)

☞ **계좌이동 서비스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는**
-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(Payinfo)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. ('15.10월)

(7)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시 지속

- 정부의 적극적 제도개선과 핀테크 기업-금융회사간 제휴 활성화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
 - (제도개선) 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서비스(3월),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(4월), 휴대가 편리한 스마트 OTP(6월) 등
 - (핀테크-금융회사간 제휴) 영세업자 대출서비스(oo은행, '15.12), 블루투스 기반 결제(xx은행, '15.12), 외환송금(△△은행, '16.3) 등

※ [참 고] 주요 언론들의 평가

- ◇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과 지원정책을 높게 평가
 - “핀테크로 대출 금리·수수료↓...국민후생↑”(oo경제, 5.6일)
 - “핀테크 활성화... 금융개혁 합격점”(△△신문, 6.22일)
- ◇ 시장의 긍정적 움직임이 계속되는 바, 조만간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
 - “금융사들이 핀테크 키다리 아저씨”(xx일보, 5.11일)
 - “간편결제, 인터넷은행, 보안주 ‘핀테크 삼총사’ 필필”(□□일보, 8.7일)

2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.

(1)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One-stop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.

- 금융회사·유관기관·정부간* 협력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게 “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” 성장단계별 맞춤형 서비스” 제공
 - * 협회·유관기관, 은행, 카드, 증권, 보험, 금융위, 금감원 등 46개 기관 참여
 - ** 총 254개 기업에게 금융회사 연계, 보안컨설팅, 입주공간 등을 제공
- ⇒ **총 254개 기업이 금융회사 연계, 보안컨설팅, 입주공간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유망기업으로 성장 중**

(2) 정책자금과 금융회사 지원으로 자금 조달이 쉬워졌습니다.

-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강화
 - ⇒ **총 296건, 2,733억원 지원**(산은 26건, 1,662억원 / 기은 270건, 1,071억원)

- 핀테크 전용펀드 조성(200억원),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직접 투자(00은행 및 자회사 → 7개 기업, 20억원)등 민간의 지원도 활발

(3)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의 든든한 멘토가 되었습니다.

- 핀테크 전담조직 신설(52개사), 자체 육성 프로그램* 마련 등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 가속화
 - * 신한 퓨처스랩, NH농협은행 핀테크 협력센터, KB 핀테크HUB센터 등
- ⇒ **금융회사의 다각적 지원으로 그간 사업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활성화**

※ [참 고] 핀테크 산업 관련 스타트업이 360여개*를 상회하며, 핀테크 산업 종사자수도 약 25,600여명**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
* 「한국핀테크포럼」 등록 업체 수('15.9월) / ** 금융보안원('15.12월)

〈 정부의 핀테크 정책 추진 이전 〉

- '00업체'는 '14년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간편 송금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
 - 간편송금서비스는 금융회사 계좌와 연계하여 송금이 이루어져야 하나, 금융회사들은 서비스 모델의 법률상 불확실성을 이유로 '00업체'와의 계휴에 소극적

〈 정부의 핀테크 정책 추진 이후의 변화 〉

- (정부의 규제완화) 금융위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유권해석*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우려하는 법률상 불확실성을 해소
 - * 00업체의 '선불수단 충전 및 환급'을 통한 자금이동 서비스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OTP 사용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가능
 - (금융회사와의 연계) 법률적 불확실성 해소와 핀테크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관심으로 13개 금융회사와 계휴
 - * 현재 33만명의 회원 확보, 누적 송금액 400억원 돌파 등 '핀테크 성공 모델로 안착'
 - (금융회사의 직접투자) XX은행*, △△네트워크, □□벤처스 등은 '00업체'에 50억원을 투자(15.7월)
 - * 「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」(15.5월) → 금융회사의 투자 유도
- ⇒ '00업체'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, 결제대금예치업 등 사업 영역 확대를 준비(15.9월)

〈 정부의 핀테크 정책 추진 이전 〉

- △△업체는 2013년부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에 'OTP(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)'를 내장하여 별도의 OTP 기기를 구비하지 않고,
 - 휴대전화 구동 또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의 접촉만으로 안전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
- ➔ 그러나,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'매체분리 원칙'*으로 인해 개발한 스마트 OTP를 상용화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

* 전자금융거래수단이 되는 매체(핸드폰, 컴퓨터 등)와 OTP를 분리하여 사용할 것

〈 정부의 핀테크 정책 추진 이후의 변화 〉

- '15년 정부가 '핀테크 육성'을 위해 다양한 IT기술의 적용을 막는 규제 개선으로 '매체분리 원칙'을 폐지'(15.2월)
 - ➔ '13년에 개발한 스마트 OTP를 출시 가능
- 또한, △△업체는 금융위가 설치한 '핀테크 지원센터', Demo day에 참석(8.27)하여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우리은행, 신한카드로부터 1:1 멘토링을 받게 되었음
- 그 결과, '15.11월부터는 우리은행, 신한카드와 스마트 OTP 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맺고 서비스를 상용화

IV. 앞으로의 과제 : 금융개혁의 달성

◇ 경쟁과 혁신을 통한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확산

1 핀테크를 통한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.

- '16년 중 인터넷 전문은행을 차질 없이 출범하여 금융산업에 “경쟁과 혁신”을 촉진
- 계좌이동서비스 대상 및 방식의 단계적* 확대(~'16.6월)
 - * 요금 자동납부: 통신·보험·카드 등 대형 기관('15.10월) → 전체 요금청구기관('16.6월)
 - * 개인간 자동송금: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금되는 자동이체('16.2월)
 - * 서비스 이용채널 확대: Payinfo('15.10월) → Payinfo 및 전국 은행지점('16.2월)
- 클라우드펀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(12월)하고, 중소기업 설명회*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
 - *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('15.12~'16.1, 6회)

2 핀테크를 뿌리내리기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.

- 민관합동 「핀테크 지원협의체」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핀테크 육성 저해 규제 개선
 - * 유권해석 요청, 핀테크 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토의·검토
 - * 인터넷전문은행, 클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저해 규제 집중 발굴
-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 확대 개편*, 핀테크 데모데이(Demo-day) 내실화** 등으로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도모
 - * 유망 핀테크 업체 소개 및 검색 기능 추가, 핀테크 관련 통계자료 구축 등
 - ** 분야별 데모데이(온라인 자산관리, 클라우드 펀딩, 보안 등) 등

3 핀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(7.15 발표)
 - ① (Test-bed) 금융공동망을 가진 금융결제원(분당센터)과 증권망을 가진 코스콤(여의도센터)에 Test-bed* 구축·운영 ('15.12월)
 - * Test-bed :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연동되어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물적 인프라



< On/Off-line 테스트베드 구성도 >

- ② (Open API)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된 Open API* 홈페이지 구축
 - *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: 특정 기능(예, 계좌조회)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, 이를 개발자에 제공시 앱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
 - 각 금융회사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던 송금·잔액조회 기능 등을 Open API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포털 개설 ('16.6월)

⇒ 시스템 구축 후에는, 잔액조회 API를 기존 가계부 앱에 추가하는 것만으로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등 새롭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 가능

4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겠습니다.

- KOTRA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진출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(8.27 방안 발표)

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* 구축

* 핀테크 지원센터-관련 기관 MOU 체결 (8.27) : KOTRA(시장분석·네트워크 지원), 특허정보원(지적재산권 분쟁 상담), 법무법인 태평양(법률 자문) 등

② KOTRA, 기존 진출기업 등의 협조를 얻어 진출 대상국 시장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지원 (예시)



③ 핀테크 해외진출 채널 다변화·공고화

i) 해외 Demo-day* 개최 및 해외 전시회** 참가 기회 제공

- *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실리콘밸리, 런던, 상하이 등 주요 해외거점 IR 개최 예정 ('15.12월 상하이에서 최초 해외 핀테크 IR 개최)
- * MWC(Mobile World Congress, 바르셀로나) 등 세계 유수 IT 전시회에 부스 설치 등 참가 지원(KOTRA,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협력)

ii) 해외 Investor 초청 「글로벌 투자 박람회」* 참여 지원

- * (대상)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, 스타트업, 벤처기업 등
- (내용) 해외 VC 및 창업센터를 초청하여 시연 및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만남주선